

Petrobras, 4년간 795억달러 투자

브라질 전체의 34% 차지 ... 원유 생산 확대에 정유공장 2개 추가건설

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가 2010년까지 4년간 1710억헤알(약 795억달러)에 달하는 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1월23일 보도했다.

브라질 정부가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5%를 목표로 4년간 5040억헤알(약 2344억달러)을 투자하겠다고 1월 22일 발표한 성장촉진계획(PAC)에 따른 것으로, Petrobras가 전체 투자 예상액의 34%를 담당하게 된다.

Petrobras는 이를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중심으로 모두 183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.

우선 석유는 현재 180만배럴인 하루 평균 생산량을 2010년까지 230만배럴로 확대할 계획이다. 북동부 페르남부코와 중동부 리우 데 자네이루에 2개의 대규모 정유시설을 건설하고 26개 수송선박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해 1350억헤알(약 628억달러)을 투입할 예정이다.

조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Petrobras 회장은 “2010년까지 브라질의 석유 소비량이 20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유전 개발사업을 확대해 석유 생산량을 늘려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천연가스 역시 현재 1600만m³인 하루 평균 생산량을 5500만m³까지 늘려 볼리비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며, 4500km의 수송관을 건설해 공급망을 확충할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1/25>